

Vol. 59

2022년 7월
국제협력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 해사법률, 해사정책, 해사안전,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 괄 박한선 실장
- 감 수 이연경 연구위원
- 발행인 김종덕 원장
- 발행처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TEL. 051-797-4800
- FAX. 051-797-4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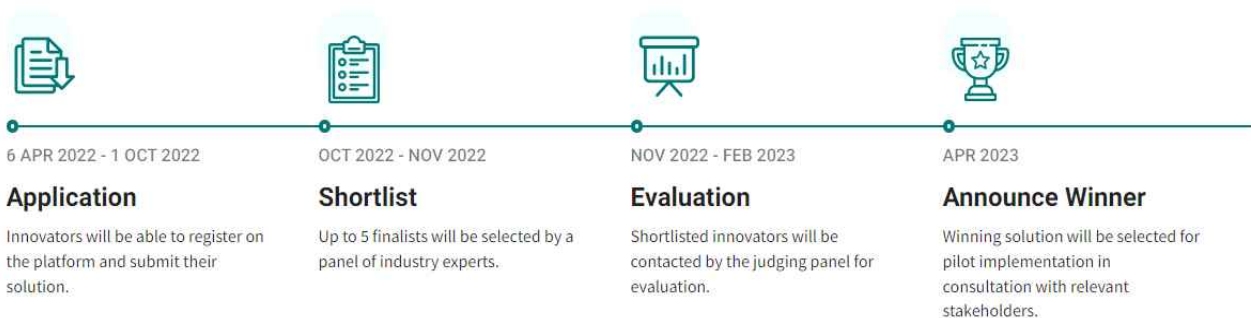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IMO와 주요국,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다방면 지원

IMO-싱가포르, Future of Shipping Conference : Decarbonisation 2022 개최

- ▶ IMO와 싱가포르 해사청이 친환경적인 해사산업 변화에 대한 논의자리 마련
 - IMO와 싱가포르 해사청은 2022년 4월 6일 'IMO-Future of Shipping Conference : Decarbonisation 2022' 제목의 컨퍼런스를 개최함^{a)}
 - 해당 컨퍼런스의 주목적은 해사산업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탄력적으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각국의 친환경화 격차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음
- ▶ IMO와 싱가포르 해사청, 탈탄소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NextGEN Connect 출시^{b)}
 - NextGEN Connect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 및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탈탄소화에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특히, 개도국은 GHG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개발 능력과 경제력이 미흡하기에 NextGEN Connect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취합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임
 - 현재 감축 목표를 달성을 위해 노력을 진행 중인 선도국가들 역시 현재 각국의 정책과 기술개발에 대한 국제적 지원 여부와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림 1〉 NextGEN Connect Challenge 2022 Timeline^{c)}

자료 : NextGEN 홈페이지 (2022.07.2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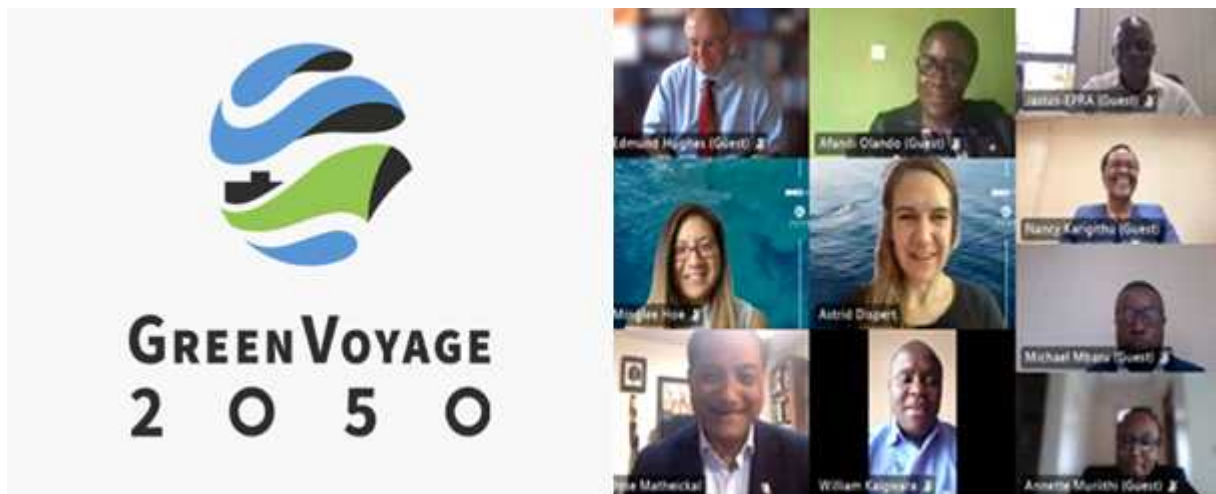
GreenVoyage2050, 케냐의 NAP(국가행동계획) 개발을 지원

- ▶ 케냐의 NAP(National Action Plan,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 시작^{d)}
 - NAP는 2020년 IMO 결의문 Res.MEPC.327(75)와 관련하여 IMO 결의서 조치의 발효를 기다리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국가의 참여를 장려한다는 목적을 가짐

- IMO와 노르웨이의 GreenVoyage2050 프로젝트는 2022년 7월 12일 케냐 정부와 공동으로 케냐의 NAP 개발에 대한 회의를 개최함
- 해당 회의는 국가 당국 및 이해관계자가 NAP 개발에 대한 동기요인과 이점을 탐색하여 국가의 기존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과 협의가 이뤄지는 플랫폼과 연결하여, IMO-노르웨이 GreenVoyage2050 NAP 가이드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됨
- 회의에서는 이미 NAP을 개발하여 제출한 IMO 회원국(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및 싱가포르) 중 일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케냐의 NAP 개발의 기반을 마련함
- 차기 회의는 2022년 7월 19일 벨리즈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Green Voyage 2050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지원과 나아가 범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GreenVoyage2050, first event with Kenya on 12 July^{d)}



자료 : IMO 홈페이지 (2022.07.25. 검색)

■ IMO-대한민국, GHG-SMART 프로그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한 걸음

▶ 대한민국은 IMO와 GHG-SMART 프로그램을 통해 IMO GHG 전략 목표 달성을 지원^{e)}

- GHG-SMART는 2020년 10월 대한민국과 IMO가 체결한 협약서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해운 교육훈련 프로그램임
- LDCs(Least-Developed Countries, 최빈개도국) 및 SIDS(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군소도서국)의 역량 구축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IMO GHG 전략 실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GHG-SMART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에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 IMO GHG 전략과 MARPOL 부속서 VI 규정에 관한 교육이 포함됨
- 또한, 개도국의 NAP 개발 및 탈탄소화 관련 기술적, 운항적 조치, 대체연료 생산 및 공급망 확보방안 모색을 지원하고 있음
- 그리고 참여국의 산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친환경 정책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구체적, 실효적 실무 연수 추진을 계획 중임

▶ GHG-SMART 워크숍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¹⁾

- IMO-대한민국 GHG-SMART 교육 워크숍은 2022년 1월 24일~28일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냉, 도미니카, 자메이카, 세이셸 등의 개발도상국 15개국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그리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대표단이 참석함
- 교육 워크숍은 해양 탈탄소화 분야의 국제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통한 양방향 플랫폼을 구성되었으나, 훈련과정의 일환으로 계획하였던 산업현장 방문은 COVID-19로 인하여 연기되어 왔음
- 그러나 올해 워크숍은 원안대로 진행할 계획이며, 참가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GHG 전략에 대한 이행방안과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얻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임

■ GHG 배출 감축을 위한 개도국 지원, 우리나라 내부의 노력도 중요

▶ 개도국의 GHG 배출 감축 정책개발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책에 적극 참여가 필요

- 우리나라는 IMO GHG 전략목표를 위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국가로, 관련 정책을 이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개도국의 정책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GHG 배출 감축량은 CII¹⁾, EEDI²⁾ 등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선사들은 GHG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 하되, CII, EEDI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 선사들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배출 저감 장치 설치 비용 지원 사업³⁾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EEXI³⁾ 기준 충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1) Carbon Intensity Indicator, 탄소집약도 지수 : 연료사용량, 운항 거리 등 선박의 운항 정보를 활용하여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CO₂량을 계산 및 지수화한 값으로, 국제항해선박은 탄소 배출 효율 기준에 따라 A~E 등 급으로 평가받는다. 3년 연속 D등급을 맞거나, E등급을 한 번이라도 받는 경우 시정 조치를 마련해 IMO의 승인을 받아야만 정상 운항이 가능하다.

2)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 :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의미하며, 2013. 1. 1.부터 총톤수 400톤 이상의 13개 선종의 선박은 선박 건조 시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를 계산하여야 하며, 그중 7개 선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허용값을 준수하여 설계·건조하여야 함

3)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기존 선박의 에너지 효율지수 :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지수로, 현존하는 모든 선박에도 적용함.

- 배출 저감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 등과 같은 정책으로 인하여 GHG 배출 감축 효과가 발생하면, 정책 타당성 및 효과 검증 결과를 토대로 개도국 정책 개발 지원이 가능함
- 우리나라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하는 것이 국제협력과 GHG 배출 감축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됨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선도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

- 우리 정부는 GHG 배출 감축 선도를 위하여 친환경 정책에 대응하는 국적 선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최근 친환경 정책 관련 무탄소 항로개발 및 무탄소 선박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됨
- 그러한 노력의 밑바탕에는 활발한 국제협력과 정책 교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 및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함

김지호 연구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jiho@kmi.re.kr / 051-797-4662)

참고 자료

- a) <https://www.imo.org/en/About/Events/Pages/IMO-Singapore-Future-of-Shipping-Conference-2022.aspx> (검색일: 2022.07.25)
- b) <https://nextgen.imo.org/challenge> (검색일: 2022.07.25)
- c) <https://nextgen.imo.org/dashboard> (검색일: 2022.07.23)
- d) <https://www.imo.org/en/MediaCentre/Pages/WhatsNew-1732.aspx> (검색일: 2022.07.23)
- e) <https://www.imo.org/en/OurWork/PartnershipsProjects/Pages/GHG-Smart.aspx> (검색일: 2022.07.23.)
- f) <https://www.imo.org/en/MediaCentre/Pages/WhatsNew-1675.aspx> (검색일: 2022.07.25.)
- g) https://www.mof.go.kr/synap/view.do?fn=MOF_ARTICLE_45569_2022040718001cc0ae570&fd=202207 (검색일: 2022.07.25.)